

# “환불도 대안도 없이”... 피너툰 종료에 독자·작가들 ‘분노’

## 서비스 종료 선언, ‘당일 통보’

독자들, 불명확한 보상 방안에 반발 작가들, 대체 플랫폼 찾기에 분주 “디지털 콘텐츠 소장권 보장 필요”

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갑작스레 서비스 종료를 발표해 독자와 작가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너툰은 지난 16일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8일 자정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피너툰 측은 “오는 16일부터 재화 자동충전 기능을 중단하고, 29일부터는 작품 열람과 연재가 모두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잔여 재화인 ‘땅콩’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환불 절차를 진행하며, 이 기간 안에 환불 신청하지 않은 땅콩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구매한 작품에 대한 보상 방안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피너툰은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BL(보이즈 러브)과 로맨스 장르를 중심으로 시장 중위권을 유지해 왔다.



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자정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렸다. 위 화면은 피너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뜨는 ‘서비스 종료’ 배너. /피너툰 홈페이지 갈무리

특히 ‘바탈의 짐승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다’, ‘두근두근 공략기’ 등 인기 독점작을 앞세워 독자층을 공략하며, 타 플랫폼보다 높은 코인 가격을 책정해 왔다.

심지어 두 달 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 종료 소식에 독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독자는 개인 SNS를 통해 “70% 할인 행사로 여러 작품

을 구매했는데, 이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불만을 표했다.

웹툰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저작권과 디지털 권리 관리(DRM)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 소장이 어렵다. 피너툰은 “서비스 종료 전까지 사용된 재화는 작가들에게 정상적으로 정산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매작이나 미완결 작품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서비스 종료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독자뿐만이 아니다. 피너툰에서 작품을 연재하던 작가들 또한 당일 통보를 받아 대체 플랫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정관계’를 연재한 조상덕 작가는 개인 SNS를 통해 “작품이 완결되고 3년 뒤인 27일에 서비스 종료 후 (독자들

이) 소장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며 토로했다. ‘도망쳐요! 하대리님’의 라떼 팬더 작가는 개인 SNS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오늘(16일) 오전에 메일로 통보 받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스캐치’의 도삭 작가 역시 “일방적인 통보식 종료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작가들은 독자들에게 타 플랫폼으로의 연재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알리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대물전’의 속공 작가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플랫폼에서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웹툰 산업의 과도한 플랫폼 의존성 등 구조적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종료와 함께 구매한 작품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큰 손해를 안긴다”면서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콘텐츠 구매자가 소장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혜민 기자 hyemin@metroseoul.co.kr

## 네카오 “소비자 취향도 AI로 읽는다”

(네이버+카카오)

초개인화 쇼핑 서비스로 혁신 선도 AI쇼핑메이트·플러스스토어로 경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을 쇼핑 페이지에 적용하며 초(超) 개인화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 AI로 초개인화한 쇼핑서비스는 그대로 광고수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의 결정적 캐시카우 역할도 해 중요성이 높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AI 기반 초개인화 쇼핑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카카오가 ‘AI 쇼핑메이트’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 플러스스토어를 별도 서비스로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개인화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오는 상반기 중으로 별도 앱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플러스스토어는 개인별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해 상품뿐 아니라 혜택과 프로모션, 쇼핑 관련 콘



네이버플러스스토어 서비스 설명. 플러스스토어는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춘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텐츠까지 추천, 전시하는 초개인화 AI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상품 스펙을 중심으로 검색·비교하는 쇼핑 사용성은 보다 개선된 카탈로그 기능을 적용한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로 리브랜딩하여 대응하고, 에이아이템즈(AiTEMS) 상품 추천 기능이나 포유(FOR YOU) 서비스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AI 추천 쇼핑 경험은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통해 전면 확대한다.

플러스스토어 출시로 이용자들은 쇼

핑 경험이 개선되고 판매자는 쇼핑 데이터 수집과 분석 또한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장기화한 소비심리 부진에도 업계에서는 네이버 쇼핑만의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증권 이준호 연구원은 커머스 사업과 관련해 “4분기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3분기과 유사한 2% 수준의 성장 정체 확인되나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브랜드스토어 중심으로 이를 상회할(+5.2%)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김서현 기자 seoh@

## 과기부 “스마트폰 과의존 잡는다”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 방식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 이에 따라 담배·약물·성범죄, 사이버 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서울에 처음 개소한 이후, 2015년부터 전국 18개소

에서 운영되며 법적 의무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센터 운영 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필요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쉼센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해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과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담배·약물·성범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도박 등 위험 수준에 따라 기숙형 치유캠프, 병원 치료 등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ESG 협의체와 협력하고,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 국내 IT 기업 최초 한국생태학회와 맞손

네이버, ESG 경영 고도화 위해 협약

네이버는 지난 15일 한국생태학회와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발굴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버와 한국생태학회는 데이터센터 각 층천과 커넥트윈 주변 생태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춘천 지역 사업장을 10년 이상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를 분석한다. 네이

버는 한국생태학회 자문을 바탕으로 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발굴하는 등 IT·플랫폼 업계에 특화된 환경경영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플랫폼 기업과 한국생태학회가 협력한 첫 사례다. 네이버는 전문성 있는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최근 국제 사회에서 중요도가 높아진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환경영향 저감 실천을 위한 ESG경영 체계를 구축하



네이버 1784에서 정철의 한국생태학회장(왼쪽)과 임동아 네이버 그린 파트너십 리더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한 모습. /네이버

겠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KT, AX시대 실무형 AI인재 양성

‘에이블스쿨 7기’ 교육생 모집

KT는 내달 10일까지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의 7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이블스쿨은 KT와 정부가 함께 기업 실무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분야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일자리와 연계해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7기 교육은 산업계 수요에 맞춰 AI와 클라우드 과정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AI 및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

비스 개발과 제안 영역의 실무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7기 신규 교육생은 3월 중순 입교해 약 6개월 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수료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 7기부터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이번 7기 모집에서는 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수료자와 Java 사용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코딩테스트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